**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마태복음 20:17-28>**

**17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18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20 그 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2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23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24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25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한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여, 구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복음서 기자 마태는 그녀가 누구였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곧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왜 이 시점에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걸까? 두 가지 확신에 기초합니다. 하나는 오기로 한 메시야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몸을 굽혀 절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메시야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임박했다는 확신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주의 나라’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 백성의 삶은 고되고 비참했을 것입니다.그들에게 한 줄기 소망은 약속대로 메시야가 오셔서 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구현하리라는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예수’라는 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요1:14).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 그 아버지께 보냄받아 세상에 왔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한다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인자’라 칭하곤 했는데, 이 ‘인자’(the Son of Man)라는 말 속에서 당시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다니엘서의 메시야 예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단7:13-14)

나라가 나라를 잇고, 또다른 나라가 일어나 앞의 나라를 대체하는 그 반복되는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 속에서 마침내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 하늘의 하나님이 친히 세우실 한 나라가 설 것임을 다니엘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의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모든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섬김을 받을 ‘인자 같은 이’에 대해 또한 말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자신을 ‘인자’라 칭하셨다는 것은 이 예언 속의 메시야, 즉 ‘인자 같은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가 예수께 그런 요구를 한 것도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곧 그 땅에 새 나라가 세워지고, 자기 두 아들이 삼년간 따라다녔던 분이 그 나라의 왕좌에 앉게 되리라 생각했다면 말입니다.

더구나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고 계십니다. 자기 두 아들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어머니는 이제 정말 때가 되었다, 내 두 아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생각한 것입니다.

제 자식을 위한 엄마의 치맛바람, 이처럼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이천 년 전 예수님 주위에도 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부모 마음이야 인지상정이라지만, 과연 무엇이 자식을 위하는 길인지 바로 아는 일은 필요할 것입니다.

어머니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두 아들도 함께 왔다고 합니다. 바라는 것이 그 어머니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고 후에 다른 제자들이 그 두 제자에 대해 분히 여겼다는 것은 그들도 생각하는 바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출세를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란 그분이 가려 하시는 ‘수난과 죽음의 길’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들의 무수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시75;렘25)을 그분이 대신 받으시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마26:39) 하지만 그분의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42)

예수님은 그분이 마시려는 잔이 무엇이며 가시려는 길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18-19절에도 그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찔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당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분명 들었지만 실상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던 메시야의 길과 너무나 배치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질문이라도 했을 법 한데 그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느낌의 그 말씀을 자신들의 미래와 연관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또다시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인자’로 호칭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인자’에 관한 제자들의 기존 인식을 바꿔주시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야,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가져올 그 ‘인자 같은 이’로 생각한다. 맞다. 내가 그 ‘인자’다. 하지만 나를 통해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너희 예상과 다를 것이다. 그 인자가 가게 될 길은 수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부활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 될 것이다.*

다니엘서의 메시야 예언은 세상 끝에 있을 일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메시야가 걸어갈 수난의 길에 대해 예언한 또다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고난 받는 종’의 노래, 예수께서 걸으신 메시야의 길은 바로 그 예언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사53:3-9)

그런 의미에서 그 어머니와 두 아들은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될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마셔야 할 잔이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대답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께서 새 나라를 위한 거사를 감행하실 때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그리 대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하게 여겨지는 일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달라고 조른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잔을 마신다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그분 가신 길을 따라 과연 그 잔을 마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예비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일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도 자리에 차등이 있는 곳이란 말인가? 누군가는 존귀한 자리에 앉고 누군가는 비천한 자리에 앉는 일, 누군가는 많이 갖고 누군가는 적게 갖는 일이 거기서도 계속될 것인가? 그렇다면 과연 그곳을 ‘천국’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질문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우선 전제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나쁜 것들이 사라진 이상적인 세계, 자신이 꿈꾸는 어떤 유토피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결코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력의 한계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둘 사이의 유사성을 통해 부분적인 진실을 전달합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들을 통해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차등이 없는 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 관계없이 모두가 천국에서 동일한 대우를 받을 거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열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만 봐도 그렇습니다. 맡겨진 것에 더 충성했던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이 맡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과 다른 점은 차등이 없다는 점이 아니라 그 차등이 초래하는 악이 없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또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못살게구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혀진 사람이 그 높은 자리를 이용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억압할까요?

어쩌면 그것은 이 죄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 관점에서의 우려일지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으나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도 있음을 봅니다. 또한 많은 것을 가졌으나 너그럽게 나누며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도 있음을 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예외적이라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당연한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곳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이 땅에 존재하는 주님의 제자공동체, 혹은 주님의 교회 안에 나타나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27절 말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백성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 합니다. ‘임의로 주관한다’는 것은 백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 의사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를 부린다’는 것은 저항하는 세력을 힘으로 찍어눌러 복종시키려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나라들과 권력자들 속에서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라 해도, 예수님의 제자공동체, 주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로 여겨지곤 하지만, 주님의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로 여겨지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이를 종으로 부리는 자가 으뜸으로 여겨지곤 하지만, 주님의 교회에서는 종의 모습으로 다른 이를 섬기는 자가 으뜸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여겨지리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압니다. 말은 안 해도 다 압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자인지.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간에 서로 배려하고 용납할 것을 권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18)

예수님께서 먼저 이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은 그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13:13-15)

오늘 본문 2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호칭하십니다. 세상 끝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섬김을 받으실 그 메시야가 그렇게 먼저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세상 권력자들의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일방적입니다. 자기 의사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 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며 은인 행세를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자기만족적이요 자기과시적인 호의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이와 대조적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섬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빌2:6-7)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를 비우는 섬김이었습니다. 자기 안에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섬김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은 예수님이셨지만, 그 일은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안에 삭개오를 위한 공간을 창조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섬김이었습니다. ‘대속물’이란 종이나 노예로 팔린 어떤 사람을 거기서 해방시키고자 다른 이가 대신 치르는 대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이로 볼 때 ‘섬긴다’는 것은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대가를 내가 대신 치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다운 섬김은 일방적이 아닌 상호적 관계성을 전제합니다. 자기를 뒤로 물려 상대방을 위한 이해와 용납의 공간을 내 안에 마련하는 일, 그리고 그의 유익을 위해 정말 필요한 어떤 것을 내가 조용히 대신해주는 일, 이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섬김의 실천이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의 바울의 권면이 이 섬김의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 더 많은 권한 기회를 가지게 되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범위가 그 만큼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 요셉과 다니엘처럼 세상의 높은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올라야 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고지론’이라 불리는 그런 주장을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출세하고 싶은 자기 욕망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른 기독교인들 중에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광범위하게 뻗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총리가 되는 것을 목표로 기도하고 노력해서 이집트 총리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일들에 성실한 결과로 그 일을 감당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으로 준비되어간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고위직에 오르겠다는 뜻을 정하고 그 일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다는 뜻을 정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높은 자리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오늘 자기에게 맡겨진 일 열심히 즐겁게 하길 바랍니다. 그들이 출세하길 바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들 각각을 위한 자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먼저입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만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적절한 자리로 그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섬김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가신 섬김의 길을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실천하기 원하는, 꼬빌리시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